

골롬반 선교

2021년 여름가을호 vol.119

“모든 이가 유일하고 고유한 사람”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제98항



엠마우스 그룹홈 가족과 천노엘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식사하셨습니까?



안인성 패트릭 신부·본지 편집장

신학교 수업 중에 제가 가르치는 신학생들에게 항상 이 질문을 화두로 삼아 던집니다.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합니까?” 무엇을 누구와 함께 먹는지는 개인으로서, 공동체로서, 사제로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해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음식 자체, 함께 먹는 사람은 우리 정체성을 정의하는 동시에 권력, 지위, 부와 계급 등을 드러내는 사회적 지표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마르 2,15), 나병 환자 시몬(마르 14,3-9), 마르타와 마리아(루카 10,38-42), 어떤 바리사이(루카 7,36-50)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마르 14,12-26), 부활하신 후 호숫가에서(요한 21,12)는 식사를 주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와 식사를 했느냐는 스캔들거리가 되었으며 주류 사회를 뒤흔들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요?”(마르 2,16)

마르코 복음사가는 의도적으로 헤로데의 생일잔치(6,14-29)와 예수님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6,30-44)를 극명하게 대조시켜 배치했습니다. 헤로데의 잔치는 화려한 왕궁에서 고관과 무관과 갈릴래아 유지들에게 베푸는 호화로운 만찬이었습니다. 춤추는 공주와 함께 이 연회는 사리사욕과 권력뿐만 아니라 세례자 요한을 즉결 처형하는 냉혹한 폭력을 발생시켰습니다. 헤로데의 식사는 죽음의 잔치였던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의 연회는 권력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곳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군중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식사이며, “목자 없는 양과 같았던” 사람들을 향한 연민의 정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군중을 현대 말로 하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평가절하된 사람들”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을 사형시킨 헤로데를 향한 분노로 들고 일어선 이들을 예수님께서 한데 모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부패한 권력을 전복하도록 하는 대신에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당신께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반란과 불복종을 일으키셨습니다.

시편 23편이 배경음악으로 흘러나오듯, 신 명 백 명씩 무리 지어 푸른 잔디에 앉히는 방식으로 이 반란은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의 정점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두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 조각을 제자들에게 주어서 모인 대중들에게 나누어줄 때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너그러움에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신뢰는 “측은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오천 명을 배불립니다. 예수님의 식사는 생명의 잔치입니다.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행동보다 선교 사업을 설명하는 더 나은 예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비열한 폭력과 권력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향한 신뢰 속에 사람들을 조직하고 축복의 경제를 실천하며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나누셨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도 당신처럼 똑같이 하도록 만드는, 거부할 수 없

는 너그러움의 행동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조직적이고 “거부할 수 없는 너그러운 대접 운동”을 실천한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가 될지 궁금합니다.

이번 여름가을호에서는 사회적 포용과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이클 켄드릭 박사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을 인용해 “소속도 참여도 없는 존재”라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사회 변화 과정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천노엘 신부는 장애인에 대한 교회와 사회의 변화를 돌아보게 하며, “모든 이가 유일하고 고유한 사람”(『모든 형제들』 제98항)임을 인정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는 장애인의 외침에 응답하여 보다 넓고, 포용하는 교회와 사회를 만들자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강석희 요한 형제는 장애인이 된 후 경험한 것과 가톨릭 사회복지사와의 만남을 들려줍니다.

골롬반회 평신도선교사 리더인 비다 히켈란 선교사, 미국에서 최우주 신부, 피지에서 정의군 신부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올해의 이민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오기백 신부의 얼굴과 골롬반 선교의 뿌리인 광주후원회원들의 모습도 지면에 담았습니다. 복음서 길잡이로서 정진만 신부가 마르코 복음을 소개했고, 반가운 얼굴 우성모 신부는 한국에서의 선교를 회상하며 하느님께 받은 은총을, 후원회 담당 양창우 신부는 코로나 시대에 도전한 새로운 선교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지난 6월 29일 당신의 생일이자 축일에 선종한故 기 바오로 신부를 추모하는 두 분의 글을 통해 고인을 기억합니다.

한가위가 다가오면, 개인으로서나 교회로서나 우리 식탁에 누가 앉아도 환영받는가를 조금 더 의식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것처럼 형제자매로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너그러움”의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이미 후원회원 여러분을 통해 드러났듯이 선교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한분 한분의 너그러움 덕분입니다. 모두 행복하고 안전하며 상쾌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피 한가위! 🍁

- 02 마음을 여는 글 | 안인성 패트릭 신부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식사하셨습니까?
- 04 장애인과 교회
풍요로운 공동체 건설
마이클 켄드릭
- 06 장애인 없는 교회가 ‘장애를 가진 교회’
천노엘 신부
- 1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강석희 요한
- 12 평신도선교사 | 비다 아모르 히켈란 선교사
하느님 선교를 위한 “꿈꾸기”
- 14 지원사제 | 최우주 필립보 신부
희망의 빛
- 16 성경과 데이트 | 정진만 안젤로 신부
사복음서 산책② 마르코 복음서
- 18 함께하는 여정 | 편집실
골롬반 선교의 뿌리, 광주후원회
- 21 축하합니다 | 편집실
오기백 신부
‘올해의 이민자’ 대통령 표창 수상
- 22 추모 | 김병길 야고보 · 김신숙 세실리아
기 바오로 신부님, 고맙습니다
- 24 피지 이야기 | 정의군 가롤로 신부
하느님께 늘 희망을 두어라
- 26 한국 선교의 은총 | 우성모 알베르토 신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시간
- 28 한국 이야기 | 양창우 요셉 신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 30 후원회
- 32 골롬반소식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 때문에 차별당하는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함께 돕자”고 초대하면서 “보다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자”고 촉구했다. 사진 출처: Vatican News

풍요로운 공동체 건설



마이클 켄드릭 Michael J. Kendrick 박사 • 번역 배영재 요세피나

장애인 정책, 지역사회 서비스의 가치 기반 리더십, 봉사 조직 설계 및 성찰적 실천 등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30년 이상 교수와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저서 『Letting in the Light-빛을 비춘다: 리더십, 윤리, 인간 봉사에 대한 성찰』 등 다수의 책과 논문, 칼럼을 썼다. www.kendrickconsulting.org

우리는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는 데 따르는 다양한 역할을 맡으며 사회 안에 거처합니다. 가정, 직장, 학교, 교회, 마을, 각종 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동호회나 공통 관심사 모임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나 지역을 벗어나 다른 곳을 방문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속한 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사회로부터 저평가되고 이내 거부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 가장자리로 밀려나 간혀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나환자들

이 그랬습니다. 사회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던 사람이 나병에 걸린 그 순간부터 대중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섬이나 외딴곳으로 보내져 격리된 채 여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치료를 다 받고 돌아와도 이미 굳어진 사회의 부정적 태도 때문에 계속 거부당하고 배제되었습니다. 과거 서구 사회에서는 발달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대규모 수용시설로 보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시민에 비해 저평가되고, 사회적으로 거부당한 이들하고만 어울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정신적 질병이나 기타 여건으로 다수를 겹먹게

만드는 행동을 한 이들도 결국 사회적으로 평생 배제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주민, 장애인, 중독자, 전과자, 관습과 다르게 살거나 인기 없는 종교를 가졌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다수로부터 평가절하당한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밀려나 냉대를 받을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공동체 대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하고 주변부로 내모는 것은 잘못된 처사일 뿐 아니라 밀려난 이들의 안녕을 해친다는 믿음이 많은 사회에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시각은 오래도록 지켜온 사회의 관행과 태도에 반하기 때문에 심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배제를 뒤집으려는 이 움직임은 놀랍게도 힘을 얻어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격리하는 것은 사회 전체에게도 해롭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이런 인식과 태도 변화가 대중들 사이에서 처음부터 뚜렷하진 않았으나 발달 장애, 신체 장애, 정신 장애 및 행동 장애 등등 꼬리표를 단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더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들이 공동체 일부로서 함께 살아가는 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 되며, 기회가 주어지면 더 많은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소위 꼬리표를 단 사람들은 자기 가족과 공동체의 엄청난 희생이 필요한 존재라는 과거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은 중대한 변화입니다. 이들이 직장, 교회, 동네, 학교, 가정이 행복해지는 데 의미 있는 이바지를 할 수 있으며, 긍정적 잠재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부정적 시선을 보냈던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세대를 거치며 천천히 나타난 변화를 통해 과거에 사회적으로 거부당하던 사람들이 오늘날 존중받는 역할을 맡아 공동체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많은 방법들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회적으로 평가절하당한 사람들을 공동체 생활로부터 배제시켜 버리던 과거와는 양상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 배제당했던 사람들이나 집단들이 수행할 수 있는 새롭고 긍정적인 역할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다수가 받아들이는 데 오랜시간이 걸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진적 변화에서 얻은 많은 교훈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만 짚어보면 우리가 성취한 바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타인을 부당하게 바라볼 여지가 얼마든지 있으므로 이를 고쳐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타인을 공정하게 예의를 갖춰 대하지 못해 왔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행동을 멈추고 타인이 우리와 어떤 차이점을 지녔는지 자신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타인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력을 기울이고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했어도 완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길고 불확실한 과정에 전념해야 하고 난관에 부딪힐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변화를 위해 분투하면서 타인의 도움 없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편이 되어줄 협력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끝으로, 습관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을 바꾸는 데 있어 여전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해 주고 지원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임해야 합니다. 

엠마우스 그룹홀에서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김윤정 씨가 올해 2월,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복지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지금까지 성취한 것을 바탕으로 사회인으로서 더 큰 꿈을 실현할 그의 미래를 응원한다.





장애인 없는 교회가 ‘장애를 가진 교회’

천노엘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956년 아일랜드에서 사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에 와서 1981년까지 광주대교구에서 본당사목을 하였다. 1981년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그룸홈’을 한국 최초로 시작하였고, 1985년 엠마우스복지관과 1993년 사회복지법인 무지개 공동회를 설립하여 장애인도 사회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안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 대한민국 정부는 장애인 인권과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천노엘 신부에게 한국 국적을 수여하였다. 올해 사제수품 65주년을 맞았으며, 한결같이 장애인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있다.

‘골롬반선교’ 청탁 원고 | 사진 제공: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에 수용시설에서 살아왔던 발달장애인 한 명과 자원봉사자 한 명과 함께 광주 시내 일반 주택에서 한 식구로서 함께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첫 번째로 설립한 그룹홈(Group Home: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입니다.

이 시기 보건복지부는 그룹홈, 지역사회 중심서비스, 탈시설화, 정상화 원리와 같은 용어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계나 의료계 전문가들은 저에게 지역사회 속에 게다가 일반 가정집에 발달장애인이 사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그것은 한국 문화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신자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천노엘 신부가 정신이 약간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장애인을 묘사하는 용어는 끔찍했습니다. “-이”를 붙여 소위 정상이 아닌 이질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절름발이/ 병어리/ 귀머거리/ 멍청이/ 바보/ 백치 ... 이런 단어가 스스로없이 쓰였으며, 병신 욕잡하네/ 봉사 문고리 잡기/ 봉사 잡자나 마나/ 대대 곱사등이 같은 속담이 일상적으로

쓰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980년에 서울 가톨릭대학교가 장애인 3명의 입학 신청을 거부했다는 기사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김수환 추기경께서 요청한 재심에 따라 뒤늦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80~90년대 많은 주교들께서는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로부터 격리된 대형 수용시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주교님들의 의도는 선한 마음에서 나왔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 결과는 신자들에게 장애인은 지역사회가 아닌 대형 수용시설에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게 하는 데 나쁜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그 당시 성당에 열심히 다니던 교우 한 분이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당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 결국 시설이 갖춰진 예배당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예언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일은 지방 정부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는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대우를 해주는 일을 소홀하게 여겨왔습니다.

울봄, 그룹홈 가족들이 텃밭에 감자를 심었다.



2021년 여름가을

장애인에 관한 관심은 예수님의 탁월한 사목 중 하나였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적에 신앙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는 나자렛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인지 의심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라고 묻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듣고 본 대로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슴 이들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마태 11,2-5).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당신 존재를 보여 주시는 방법으로 장애인을 치유하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보다 장애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교회입니다. 장애인을 버린 교회는 장애를 가진 교회입니다.

1980년대와 비교하면 지금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변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교회가 장애인을 배제하는 부정적 시각에서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우 좋은 징후를 볼 수 있습니다. 새로 지어진 모든 성당은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고, 오래된 성당은 재정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러 교구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일학교가 생겼습니다. 일부 신학대학 교수 신부들은 신학생들이 훗날 사제가 되



① 설날 미사를 드린 후 엠마우스 가족과 함께
② 엠마우스 공동체 초창기 성탄미사(1980년대 초)
③ 그룹홈 식구들과 즐거운 삼겹살 파티

어 장애인을 위한 사목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소속도 참여도 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시민이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들을 돌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민사회와 교회 공동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까다롭고 고된 여정이지만, 모든 이가 유일하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사람임을 인식할 수 있는 양심의 형성에 점점 더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 반복하겠습니다. 장애 때문에 차별받는 이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모든 형제들』 제98항

현재 장애인을 위한 정부 정책에는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중심서비스가 있는데, 이는 매우 복음적인 정책이며 박수를 받아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룹홈에 살더라도 사회 참여가 없다면, 또 다른 작은 시설에 갇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대로 장애인들이 “시민사회와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는 급진적 변화가 있어야만 쇠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장애인의 외침에 응답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와 교회에 통합되도록 돕는데 지대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쇠신은 교회에게 주어진 무시할 수 없는 도전입니다. ✠

주님께서서 여러분과 함께!

강석희 요한



필자

“주님께서서 여러분과 함께!”

이 평화의 인사를 들은 지 너무 오래되었는데도, 세월이 한참 흘러 드린 미사에서 응답이 입에서 바로 흘러나와 얼마나 신기했던지! 저는 중학생 시절까지 강릉 임당동성당에서 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부터 2007년까지 30여 년 동안 미사도 기도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옛날 강릉에서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그날도, 골롬반회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를 봉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90년대 초 고국을 떠나 일본에서 열심히 돈을 벌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동맥류를 앓게 되었습니다. 2년 가까이 그곳 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돈도 가족도 없이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활동적인 사람이었던 저는 불과 몇 시간 만에 몸 절반이 마비돼 제 몸 하나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교포살이란 외롭고 어려운 법이지만, 타국에서 갈 곳 없는 장애인이 되어 사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절망과 싸우고 있을 때, 어느 교포 할머니께서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 상황에 마음 아파하며 자주 만나러 오셨던 그분은 마리아라는 세례명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리아 할머니는 오실 때마다 저에게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셨습니다. 한국에 가면 저를 도와줄 친구가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1년 여쯤 지나서야 저는 용기를 냈고, 할머니의 도움으로 귀국이 성사되었습니다.

2007년, 초조하고 걱정된 마음 가득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마리아 할머니의 친구 김원후 프란치스코 형제님이 마중 나오셨습니다. 그는 서울대교구 가톨릭사회복지회 산하 장애인 보호시설의 원장이었습니다. 이후, 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타국 병원에 누

워 있던 제가 성인 남성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들 중 한 명의 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혼란과 놀람이 사라지고 삶에 적응할 때쯤 새로운 존재의 역설이 드러났습니다.

주류 사회에서 배제된, 한국에서 가장 약하고 힘없는 몇몇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저를 반겨 주었고, 그들이 내게 바라는 건 오직 내가 더 건강해지고 그들 또한 잘 살도록 협력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돈을 벌며 치열하게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뿐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돈을 벌 수단이 없는데도, 저를 보살피 주고 저 또한 보살필 사람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부터 환대받고, 그 환대는 조건 없이 자유롭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지원하는 광범위한 봉사자 네트워크가 있었고, 넓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를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지 않고, 같은 인간으로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아마 대부분 두려움 때문에) 편견을 가진 채 우리를 대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느님을 기쁘게 하려고 봉사한다는 인상을 종종 주었지만, 정작 그들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감사한 점은 소식이 끊겼던 가족들과 친구들과 재회한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동안 홀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무덤에 가보지도 못했고 사실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항상 죄책감을 느꼈어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에 안타까워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원후 원장님이 저에게 일찍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묻혀 계신 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 그토록 큰 관심과 사랑을 주었는지 당시를 생각해 보면 크게 압도당한 듯 지금도 가슴이 벅차옵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신체적 능력 그 이상입니다. 치유는 전체론적인데 이는 신체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해당합니다. 시설에서 함께 살고 있던 장애인들의 간절한 소망은 그들이 가족과 함께 평범한 가정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추석, 설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누리는 것입니다.



필자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그를 동반해 왔던 김원후 프란치스코 전 '신망애의집' 원장

저는 여전히 장애인입니다. 어떤 날은 다른 날보다 낫지만, 날마다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환대와 많은 봉사자들의 마음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내 집도 있고, 사회복지사로서 탈시설 후 그룹홈(공동생활가정)에서 사는 다른 장애인들을 동반하며 지원하는 책임도 맡고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도 많고, 완전히 다른 눈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는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신 마리아 할머니와 원장님과 만난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돌아보면 참으로 감사드릴 뿐입니다. ✠

하느님 선교를 위한 “꿈꾸기”



비다 아모르 히켈란 Vida Amor Hequilan 선교사 • 번역 배영재 요세피아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필리핀 출신으로 2006년부터 대만에서 선교하였으며, 2017년 골롬반평신도선교사 중앙 리더십팀 코디네이터로 선출되어 골롬반회 본부가 있는 홍콩에서 일하고 있다.



필리핀에서는 집을 옮길 때(이사) 이웃들이 돕는 전통이 있다. 이는 이 나라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잘 드러낸다.
사진: Bayanihan, 10 Ways to express Filipino Nationalism

처음 골롬반회 평신도선교사에 관해 들었을 당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겪고 있었고, 제 미래를 앞에 두고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삶으로 막 발을 디뎠을 때도 어떻게 선교사가 되는지도 몰랐고, 제 신앙과도 씨름하고 있었기에 스스로 너무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중 필리핀 민다나오섬 오사미스에서 활동하는 골롬반 선교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에게 부족하다고 느꼈던 다른 어떤 힘을 그들에게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 줄기 빛을 본 듯했고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이 새로운 길을 계속 걸어가 보고 싶은 열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만으로 파견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와 문화에 적응하느라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러한 시간을 지나오면서 하느님과 저의 관계는 깊어지고 성숙해졌습니다. 차차 그곳 사람들과 그들의 문화를 사랑하게 되면서, 놀랍게도 저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 다. 제 부족함과 나약함을 느끼며 수없이 도전 받고 의구심에 사로잡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받은 선물은 제가 겪은 어려움보다 훨씬 컸기에 제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오히려 제 약함을 통하여 하느님을 더 신뢰하고, 제 삶과 선교 여정을 성령께서 이끄시도록 내어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선교에 관한 제 이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했습니다. 선교는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배우고 가르쳐 주며, 세상과 하느님의 피조물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런 통찰을 하게 되면서 하느님과 관계도 돈독해지고 무엇보다 하느님의 선교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 선교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 사명의 모든 차원에 기여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느님의 통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모든 피조물과 연대하는 촉매제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리핀에서 중요한 개념인 “바야니한(Bayanihan)”이 떠오르는데 이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웃을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을 여럿이 분담하면 더 쉽게 해낼 수 있다는 뜻으로 “공동체 정신”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바야니한이 가장 잘 드러난 경우는 시골에서 사람들이 이사갈 때입니다. “바하이-쿠보(Bahay kubo)”라고 하는 필리핀 전통 가옥을 새로운 집터로 옮기려면 나무 장대를 집 바닥에 넣어 엮은 다음 여러 사람이 어깨 위에 집을 얹어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야 합니다. 가장 최근에 반포한 회칙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공동체에 대한 비전에 색다른 차원을 추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탱하고 도와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앞을 바라보도록 서로 도움을 줍니다. 함께 꿈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모든 형제들』 제8항). 교황께서 보시기에 공동체는 집을 옮기는 것처럼 현실적이며 생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할 뿐 아니라 미래를 그리는 바탕이기도 합니다.

저는 2017년 골롬반평신도선교사의 중앙 코디네이터로 선출되었습니다. 한국 출신 손선영 카타리나 선교사를 비롯한 다른 팀원들과 함께 일상적인 선교 활동을 수행해 가면서, 각 나라에서 활동하는 골롬반회 평신도선교사들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고, 그들의 활동을 복돋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골롬반 평신도 선교는 골롬반회의 사제들, 후원자와 은인들, 직원들

과의 파트너십과 협력에 기반하여 하느님 사명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협력 관계는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재능을 발견해 주는 것을 원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리더십팀이라는 위치는 부담이 크긴 해도 특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책임이 리더십팀에 부여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제약이 많아진 상황에서 우리는 활동이나 행정을 하는 대신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언급하신 “꿈꾸기”에 맞추어 우리의 초점을 조정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심사숙고할 시간을 가지면서 앞날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현실에 창의적으로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도 평신도선교사들뿐 아니라 골롬반 선교회 사제들도 같은 상황에서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부는 1990년부터 평신도들을 선교사로 받아들이고 많은 이들이 해외로 파견될 수 있도록 동반하였습니다. 이러한 헌신으로 뛰어난 평신도선교사들을 배출했고, 오늘날 힘든 시기인데도 계속해서 한국 젊은이들은 선교를 위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야말로 평신도 선교라는 한국 천주교회의 오랜 전통을 잇는 희망의 불씨입니다. 저는 이들과 연대하는 마음으로 선교의 밝은 미래를 꿈꾸겠습니다. ✠

필자(앞줄 오른쪽 두 번째)는 2017년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국제회의에서 리더십팀으로 선출되었다.



희망의 빛

최우주 필립보 신부

서울대교구 소속이며 골롬반회 지원사제로 2012년 페루에 파견되어 리마에서 6년간 선교했다. 2019년에는 미국지부로 발령받고, 미국 엘패소와 멕시코 후아레스를 오가면서 본당사목과 이민자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한 이민자 어린이가 자신이 경험하고 목격한 것을 그렸다. ① 미국 내 국경 부근 불법 이민자 구금 시설. 인권 감수성이 낮다고 알려진 곳이다. ② 이민자들이 이용하는 기차. 달리는 열차에 올라타다가 또는 지붕에 있다가 떨어져 죽고 다치는 사고가 빈번해 “괴물”이라고 불린다. ③ 멕시코-미국을 가르는 국경 장벽과 강 ④ 강을 헤엄쳐 국경을 건너가는 가족

페루에서 선교할 때 멕시코를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와하카’라는 지역인데, 멕시코를 남북으로 잇는 기차길이 놓여 있는 곳입니다. 기차가 향하는 마지막 역은 미국-멕시코 국경 작은 도시들입니다. 와하카에는 미국으로 향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의 행렬인 ‘카라반(caravan)’에게 식사와 묵을 곳을 제공하는 이민자 숙소가 있습니다. 국경 도시까지 한 번에 가는 기차 노

가지도 못하는 남자의 모습이 아직도 제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이민자들의 경우, 중남미의 정글을 통과하는 길에서 마주친 주검들을 보고 자신은 그렇게 죽고 싶지는 않다며 절망과 다짐을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저를 미국-멕시코 접경 도시인 엘패

소-후아레스로 이끈 것도 당시 경험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민자들이 그토록 가고자 하는 “약속의 땅”에서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고, 골롬반 선교가 미국-멕시코 접경 도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보고 느끼고, 함께하고 싶었기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지 못해 먼 길을 걸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기차를 어렵사리 탔다고 해도 기차 지붕에 올라타 매달려 가다 보니 안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행여 졸다가 떨어질까 봐 혁대나 끈으로 자기 몸을 지붕에 묶고 이동합니다만, 떨어져 목숨을 잃거나 크게 다치는 일도 생깁니다. 두 다리를 잃어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도,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



국경을 넘다 사망한 이들을 위한 위령미사 후 멕시코 사제들과 골롬반회 윌리엄 몰튼 신부(왼쪽)와 함께 *장소: 미국-멕시코 국경 지대

소-후아레스로 이끈 것도 당시 경험 때문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민자들이 그토록 가고자 하는 “약속의 땅”에서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했고, 골롬반 선교가 미국-멕시코 접경 도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직접 보고 느끼고, 함께하고 싶었기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실상 미국에 온 이민자들의 삶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국가 안전을 위시하여 국경 장벽을 더 높이 세우고, 국경 순찰대가 점차 군인들처럼 무기와 장비를 더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듯 미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비좁습니다. 지난 2년간 미국 정부의 행정 명령으로 이민 내지는 난민 신청자들이 멕시코에서 대기해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이민자들로 인해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이들을 노리는 범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요테”라고 불리는 불법 이민 브로커들의 유혹이 강하게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갱단들이 마약과 무기 밀수 밀매를 주로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국경 통과가 어려워지자 이민자들을 갈취하고 불법 이민 브로커 사업에도 손을 뻑니다. 골롬반 선교회가 사목하는 성당 주변에서도 브로커들이 허름한 집에 이민자들을 숨기거나 착취하다 발각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경을 건너가는 과정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 목숨을 잃는 이들이 많습니다.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순찰



국경에 몰려든 이민자들이 미국 입국에 필요한 서류 접수를 위해 검문소 앞에서 노숙하며 기약 없이 대기하고 있다.

대에 잡혀 결국 추방당합니다. 불법으로 미국 입국을 시도한 이들에게는 10년 동안 입국을 불허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있다면, 접경인 두 도시에 많은 사람들과 교회 단체들이 이들을 “환영”하고 “보호”하며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이들을 위로하는 동시에 미국의 많은 자국민들에게 이민자들이 겪은 험난한 여정에 귀를 기울이도록 안내하며 미국 이민 정책의 현실을 자각하고 그에 맞는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골롬반 선교 역시 이곳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당 관할 지역에 이민자들이 머물 숙소를 제공하고, 미국 엘패소와 멕시코 후아레스에서 이민자 사목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민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와 “저 사람들”로 쉽게 선을 긋고 차별과 혐오를 드러냅니다. 어쩌면 이는 소통 부족,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을 사회 안전을 위해서는 “잠재적 범죄자”로 바라보지 말고, 그들 또한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그래서 더욱 우리 사회에 다양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존재,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로 바라보기를 희망합니다. 서로를 환대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만남과 교육의 장이 필요하듯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서 그러한 관심과 활동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

사복음서 산책 ②

마르코 복음서 주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진만 안젤로 신부

천주교 수원교구, 독일 보훔 대학교에서 <마태오복음>을 주제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수원가톨릭대학교 교수로서 <공관복음>, <가톨릭 서간>, <성경 희랍어>를 가르치고 있다.

‘가장 오래된’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는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초기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하여 분량도 적고 내용도 단순할 뿐 아니라 고유 자료 역시 풍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8세기 이후 마르코 복음서는 긍정적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오래된 복음서’라는 주장에서 비롯하는데, 이러한 입장(‘마르코 복음 우선설’)은 ‘공관복음의 문제’, 곧 마태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 사이에서 발견된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고통받는 마르코 공동체

마르코 복음서는 1세기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2차 유다-로마 전쟁(66~70년)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64년)입니다. 두 사건은 마르코 복음서의 기록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지만, 어느 한 가지만을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점은 마르코 복음서의 저자가 고통과 고난을 겪는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예수 이야기’를 기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위한 증거로 환란과 박해에 대한 경고(4,17), 예수를 따르고자 자신의 소유를 포기한 이들이



출처: 위키미디어커먼스 wikipedia commons
〈성 마르코 복음서〉 린디스파른 복음서 936쪽, 700년 경, 34×25cm, 영국 대영 박물관 소장

받게 될 박해 예고(10,30 *마태 19,29; 루카 18,29 비교),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로마 혹은 유대 당국에 의하여 받게 될 법적 신문(13,9-13)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전쟁 피해 상황이나 박해의 규모와 성격을 정확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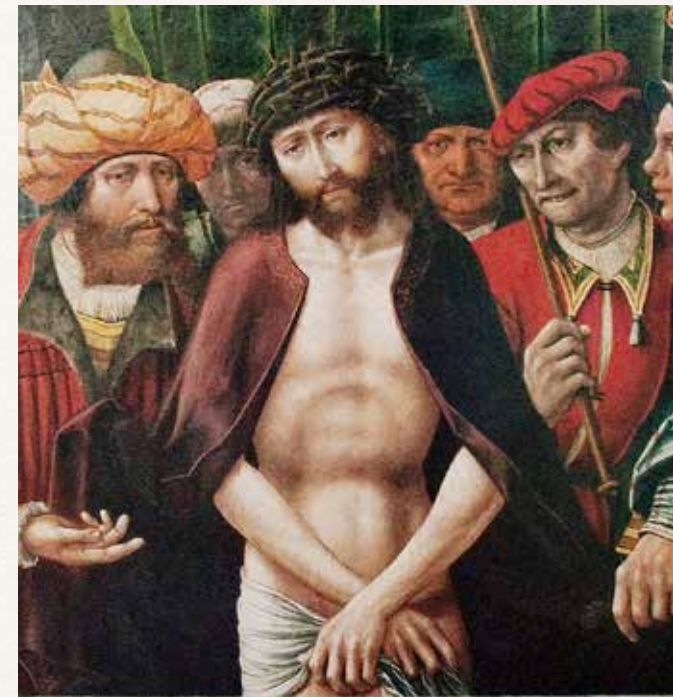
게 규명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고통’은 마르코 복음서의 청중 또는 독자를 규정짓는 중요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들은 혼란과 박해 속에서 고통을 체험하였습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고통이 하느님과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며, 신앙 공동체의 본질적 성격, 곧 ‘하느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워버릴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고통’이라는 쓰라린 체험을 통하여 마르코 공동체는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함으로써 보여준 승리의 영광과 그가 선포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1,1)

마르코 복음사가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신앙 공동체를 위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복음사가는 이미 복음서 처음부터 ‘하느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1,1). 이후 예수의 세례(1,11)와 거룩한 변모 사건(9,7)에서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의 정체성이 직접 하느님으로부터 확인되며, 마지막 예수의 죽음의 순간에 한 백인대장은 그를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마르코 복음서 저자는 세례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 이르는 예수의 생애를 소개하고, 예수가 피할 수 없었던 수난과 죽음을 복음서의 중심 주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르코 복음서에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는 하느님의 왕권에 참여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악을 물리치면서 동시에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아들입니다. 그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골로산선교』는 일상 안에서 복음을 더 깊이 맛들이기 위하여 <정진만 신부의 사복음서 산책>을 연재합니다. 1편 <마태오 복음서>는 본회 홈페이지 『골로산선교』 제118호(2021년 봄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16세기, 스웨덴 바르보 카르카 교회 소장
촬영 TS Eriksson(Kavelgrisen)
출처 링크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C3%A4rbo_kyrka_triptyk.jpg

‘하느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8,33 참조). 예수는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생명을 주기 위하여 파견되었고(10,45 참조), 죽음 앞에서 먼저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던(14,36)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1,15)

예수가 선포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 나라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래하였고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먼저 예수를 ‘하느님의 아들’로 고백할 때 시작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완성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아들 예수가 그 수난의 길을 직접 걸어갔으며, 제자들을 그 길로 초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8,34 참조). ✠

골롬반 선교의 뿌리, 광주후원회

광주후원회는 매달 한 차례 지역별 후원회 미사를 봉헌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이 미사에 참여하지 못해도 후원회원들의 기도는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후원회원을 위해, 후원회원은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면서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결되어 하느님 선교에 함께합니다. ✠

목포시 대성동 성당

매달 마지막 금요일 전 화요일 10시

목포 |



김정희 바르바라(왼쪽) 목포는 골롬반회가 오랫동안 사목한 곳이라 어르신들이 신부님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젊은 세대들도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천 원, 이천 원만 후원해도 되니까 물으세요. 당연히 되지요. 그렇게 함께하는 분들이 생겨서 보람을 느낍니다.

박월순 마틸다(오른쪽)

열심히 하시는 후원회원이 많이 계세요. 어느 할머니께서는 폐지를 주우시는데, 허리가 굽고 걷기 힘들어도 미사에 꼭 오시고 후원도 하십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직접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지 못하지만, 작게나마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마북동 골롬반선교회관

매달 마지막 금요일 오후 3시

광주 |



민명희 데레사

골롬반 선교사들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 모범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후원회원으로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하느님께서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한 골롬반회와 계속 이어지고 싶어요.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하루도 안 끊어집니다. 특히 광주대교구 출신 선교사들을 기억합니다.

전주 |



김귀례 미카엘라

1987년부터 후원회 미사를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빠짐 없이 저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된 후 골롬반회를 알게 되고 선교사들을 소중히 대해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선교사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걱정 대신 하느님께 의탁하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전주 출신 골롬반평신도선교사도 있으니 사제도 나오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 선교사들을 사랑합니다.

전주시 덕진성당

매달 마지막 금요일 전 목요일 10시



순천 |



서명례 글라라

순천 |

순천 지역은 본당에 골롬반회를 홍보하러 오신 것을 계기로 약 30년 전부터 후원회 미사를 하게 되었어요. 한결같이 후원회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골롬반 새 사제가 첫 미사하러 오시면 무척 좋아하세요. 제 구일기도 책에 "선교사를 위한 기도"를 붙여 놓고 기도 때마다 바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 늘 건강하셔야 합니다!



윤정희 요안나

휴가 온 선교사들이 선교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게나마 힘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후원회원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월 1회 함께 미사 드리고, 신부님들께서 고해성사도 정성스럽게 해주신다고 이야기하면 서요. 목주기도 때 지향을 두고 골롬반 선교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순천시 저전동 성당

매달 마지막 금요일 전수요일 10시



골롬반 선교

“오기백 신부는 빈민과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지구 생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40여 년 동안 사회통합과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법무부는 5월 20일 열린 제14회 세계 이민의 날 기념식에서 오기백 다니엘 신부에게 ‘올해의 이민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그 공로를 위와 같이 설명했다.

70년대에 골롬반회는 더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자고 결의했고,故 김수환 추기경은 교회가 힘없는 이의 인권 수호를 위해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었다. 이에 오기백 신부는 열악한 조건에 처한 노동자들과 함께하기로 했고, 1980년에 인천교구 부천으로 파견되었다. 공장 노동자들 대다수는 지방에서 온 청소년들이었는데 학업 대신 노동을 하는 현실에 열등감이 컸다. 쉬는 날은 한 달에 하루, 고된 날의 연속이었다. 오 신부는 이들이 마음 편히 모일 수 있도록 2층 가정집을 마련해 평신도 활동가와 수녀와 한 팀을 이루어 그 집을 찾는 이들을 동반했다. 자기 발견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감 회복을 돕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들은 상담해 주었으며 노동법 강의를 운영했다. 신자가 되길 원하면 교리도 가르쳤다. 그 과정을 통해 변화하여 노동 운동을 시작한 이들이 많았다.

1992년부터는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을 하면서 인향성 신부와 봉천9동으로 들어가 살았다. 주민들은 주로, 남자는 건설 노동, 여자는 가내 공업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갔다. 불안정한 고용 구조 탓에 형편은 어려웠지만, 동네에는 공부방, 노인정, 유아방, 작은 교회 등등 다양한 단체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서로 의지하며 공동체로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재개발이 본격화하자 주민들은 터전에서 쫓겨나고 공동체가 해산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오 신부는 동네의 기존 단체들과 같이하며, 개발 사업에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왔다.

1998년, 오 신부는 본회 한국지부 책임자가 되어 현장을 떠났지만, 선교회가 시대의 징표를 읽고 오늘날 우선하는 선교 과제에 응답하도록 노력해 왔다. 현재는 신학원장으로서 신학생들을 양성하고 있다. “1980년대 당시 형사들은 저희를 항상 감시하고 미행했어요. 30여 년이 지나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으니 한국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느낍니다. 제가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교구와 골롬반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현장에서 만났던 활

오기백 신부
‘올해의 이민자’
대통령 표창 수상



사진 제공: 법무부

동가와 이웃들,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과 문화의 참된 모습을 깊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 바오로 신부님,

김병길 아고보

기 바오로 신부님께서 돌아가셨다. 신부님 말씀대로 음습한 대합실에서 저승행 기차 혹은 버스를 타셨다. 아니 비행기였을까? 슬프다. 신부님께서 내게 이메일을 보내실 때마다 명동성당 아랫길 신선설렁탕을 먹고 싶다고 하셨는데, 결국 못 드시고 떠나신 것이 슬프다. 제사상에 고기가 듬뿍 든 설렁탕을 한 그릇 놓고 싶지만,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제사상도 없고 추모 미사도 없다. 그래서 더욱 슬프다.

나는 골롬반 신부님들의 한국어 선생이었다. 기 바오로 신부님도 그중 한 분이셨다. 수업 첫날 첫 시간부터 신부님은 성경을 바탕으로 공부하지 않으시고, 한국어 해부학을 시작하셨다. 동사를 명사로, 명사를 동사로 바꾸기, 동의어, 시제 등등. 그래서 두 시간 수업이 반 시간처럼 빠르게 지나갔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신부님은 다른 것들, 음악이나 철학, 하다못해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배우고 설명했다. 자동차에 관해서는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의 차이를 나에게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그때 나는 자동차가 없었다.

신부님 표현대로 나는 신부님의 한국어 스승님이었지만, 신부님은 나에게 더 크신 스승님이셨다. 나의 영어를 고급스럽게 고쳐 주셨고, 그리스도론을 통해 내 신앙의 바탕을 튼튼하게 해주셨다. 수업 중에 그리고 수업이 끝났을 때도 신부님과 나는 언제나 너무 많은 대화를 했다. 아일랜드와 영국 문화, 특히 제임스 조이스와 C.S. 루이스, 셰익스피어를 그리고 음악을 열심히

히 가르쳐 주셨고 들려주셨다. 신부님께서 늘 좋아하고 자주 들으시던 드보르작 <신세계로부터>, 특히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했던 세종문화회관 음악회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명을 받았고, 그날 행복해 하시던 신부님 얼굴이 2악장과 함께 떠오른다. 신부님의 임종을 볼 수 있었으면 나는 틀림없이 이 음악을 들려드렸을 건데 아쉽다.

기 바오로 신부님은 구두쇠였다. 신부님께서 동대문시장 단추 가게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같이 갔다. 왜 그 단추를 사셨는지는 나중에 알았다. 오래 입으신 모자 달린 모직 코트를 버리지 않고 없어진 단추와 비슷한 단추를 달아 계속 입으셨다.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신 다른 신부님들은 오실 때 작은 선물을 가져오셨지만 기 신부님은 수녀원에서 만든 머핀을 다섯 개쯤 가지고 오셨다. 다른 신부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만 원 짜리를 용돈으로 주셨다. 신부님은 주지 않거나 천 원 짜리를 주셨다.

신부님께서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셨다. 그래서 전화 대신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아픈 곳이 많아졌고 힘들다고 하셨다. 젊어서 제임스 단이라고 불릴 만큼 멋진, 신학과 철학과 음악을 마음대로 즐기시던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픈 마음이다. 내 아들이 예수회 신부로 수품하는 것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도 안타깝다. 그러나 신부님께서 육신의 아픔을 벗고 음습한 대합실을 떠나 천국행 비행기를 그것도 일등석에 타셨을 것을 생각하면 나는 행복하다. ✠



기 바오로 신부의 금경축 미사 후(2004년)

기 바오로 신부님, 필자가 공항까지 배웅했다.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욥 1,21). 신부님 선종 소식을 들은 이후 울컥하는 제 마음을 진정시키는 이 말씀을 자주 떠올립니다.

신부님을 처음 뵈는 것은 오래전 골롬반 어느 수녀님 장례미사가 끝난 후였습니다. 목포역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는데, 기 바오로 신부님께서 제게 당신은 광주역에서 내리시니 잘 가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당시 골롬반회 브리짓 수녀님께 영어를 배우고 있었는데, 수녀님의 남동생이 기 바오로 신부님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척 존경하는 브리짓 수녀님께서 아일랜드로 귀국하신 후, 저는 수녀님께 받은 사랑을 보답해 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 아팠는데, 한국에 계신 동생 신부님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어 자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버이날, 명절, 무슨 날이면 자주 찾아뵙고 같이 식사했습니다. 사목하셨을 때 재미있었던 일을 들려주시면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은 “요즘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느냐?” 하셔서 “영성 공부를 다니다 혼자 하려고 합니다.” 하니 영성 공부를 지도자 없이 혼자 하다가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하시며 지도 신부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만날 때 종종 영자 신문이나 성경 구절을 설명해 주셨고, 제 영어 발음이 틀리면 식사 때라도 다시 하라고 고쳐 주셨습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많은 식당이나 찻집에서 창피하기도 하였는데, 올바른 발음을 할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

고맙습니다

김신숙 세실리아

니다. 우리나라 말, 한자도 능하시고, 한국 문화, 풍습 그리고 세상일에도 얼마나 박식하셨는지요.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한 사람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거라더니, 신부님을 두고 만든 속담 같습니다.

2018년에 아일랜드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문안을 갔을 때, 무척 반가워 하시고 안 아픈 사람처럼 명랑하셨는데, 그때가 생전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 60여 년간 알고 지내셨던 제 아버지께 “형님 형님” 하셔서 아버지께서는 좋으시면서도 몸 둘 바를 몰라 하셨습니다. 신부님 선종 소식에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잊지 못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한국을 떠나신 날, 버스 안에서 공항에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침묵보다 더 나은 말씀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새파란 청춘에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느님 품 안에 안기신 신부님! 천국에서 반짝이는 별이 되셨지요. 한국이 어려울 때 오셔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셨으니 이제 주님께서 이끄시는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에서 편히 쉬시옵소서. 영정 앞에 큰절 올리지 못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기 바오로 신부님 감사합니다. ✠



기 바오로 신부와 누나 브리짓 수녀

하느님께 늘 희망을 두어라

정의균 가톨릭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인천 출신이며 2014년에 사제품을 받았다. 미얀마 선교에 이어서 2017년 피지 공화국으로 파견되어 바누아 레부 섬 람바사 시 성가정본당 주임신부로 사목하고 있다.

남태평양 피지 공화국의 수도 수바에서 버스를 타고 2시간, 배로 4시간, 또다시 버스를 타고 3시간 달려 오면 피지 북쪽 섬에 있는 이곳 성가정 성당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골롬반회 사제들이 몇십 년 동안 이곳에서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 후임자로 들어간 저는 본당 규모에 깜짝 놀랐는데, 관할 구역이 서울특별시 면적의 3배(2,004km²)가 넘기 때문입니다. 전체 신자 수는 3,000여 명이며 공소 열 개를 가진 본당입니다.

이곳에 와서 어느 정도 적응되어 갈 때쯤 우기가 시

작되었습니다.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거센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이 제가 사는 북섬 전체를 덮쳤습니다. 대부분 나무로 뼈대를 만들고 양철 슬레이트를 지붕으로 얹은 피지의 집들은 이 강력한 태풍에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본당 관할 고등학교에 대피소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마을 사람들이 속속 들어오는데, 한 가정 한 가정이 대피소에 도착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부유한 가정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소외된 가정이기에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치 루카복음 2장

본당 신자의 가정 방문 때



에 언급된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모습, 아기 예수님 탄생 그 순간, 작은 방 한 칸조차 없이 구유에 뉘어진 아기 예수님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성탄 전야 미사 내내 신자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덧 한 달이 지나고 수해 복구가 거의 다 되어갈 때쯤이었는데, 또 다른 태풍이 피지에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북섬 사람들은 긴장하며 대비를 단단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태풍이 강력한 바람으로 집을 무너뜨리고 지붕을 날려 버렸다면, 많은 양의 비를 머금고 상륙한 두 번째 태풍은 물폭탄을 떨어뜨려 시내 저지대가 침수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편집자 주: 비교적 안전한 나라였던 피지에도 기후변화로 전례 없는 대형 태풍과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제관은 1.2m 정도 침수되어 모든 가재도구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성전에도 비가 들어차 보좌신부님과 수녀님, 신학생과 함께 2층 건물인 본당 교육관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동네 1층 건물에 살고 있던 이웃 주민들은 본당 교육관으로 대피하였고, 동네 강아지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본당 교육관은 마치 '노아의 방주' 같았습니다. 물이 빠지기까지 3일 정도 걸렸는데, 수돗물도 끊기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위로하면서 지냈습니다. 마을 저지대 임대 주택 사정은 더 심각했는데, 가난 속에 살아온 이들에게 홍수 피해는 엄청난 데 덮친 격으로 삶의 의지를 꺾고 말았습니다.

홍수 발생 후 며칠 뒤 기도 중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하느님께 늘 희망을 두어라”(호세 12,7). 본당 신자들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서로



① 본당 관할 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봉헌한 부활 성야 미사 ② 홍수로 물에 잠긴 성당과 사제관 ③ 피지를 덮친 태풍은 집 전체를 날려 버릴 정도로 강력했다.

의지하며 한 마음 한 몸으로 수해 복구에 동참하였습니다. 비교적 피해가 적은 구역 신자들은 피해가 심한 지역 가정을 방문해 복구를 도왔습니다.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 신자분들을 보면서 하느님께서 함께 계심을, 그리고 하느님의 희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수해 복구를 하며 몇 달을 보내다 보니 부활절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마을의 교우들은 본당 관할 고등학교 운동장에 모여 성주간을 함께 보냈고, 몇몇 마을 신자들은 일주일 동안 그곳 교실에 여장을 풀고 더욱더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부활 성야, 부활초에서 당겨진 ‘그리스도의 빛’이 신자들 손에 든 초에 나누어질 때 우리는 참된 희망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이사 9,1).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본당 신자들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빛을 나누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 ✠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시간



우성모 알베르토 Albert Utzig 신부·번역 배영재 요세피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미국 출신으로 1983년 사제품을 받고 다음 해 한국에 왔다. 서울 답십리, 목포 대성동, 전남 영암에서 본당사목을 했으며, 이후 신학생 양성 프로그램을 맡았고, 경기 이천 암산리에서 평신도선교사·수녀·사제 공동체를 이루어 유기농법을 실천하며 농촌사목을 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성 베르나르디노 교구 성 마리아 본당 주임신부로 있으면서 교정사목과 교구의 정의·평화·창조질서 보전 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다.

신학생이던 1978년, 선교 실습을 하러 한국에 처음 왔는데 도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 성이 “U”자로 시작하고 “우”로 발음하니까 우 씨로 정한 뒤, 제가 소 락자만 소 우(牛)자 말고 벗 우(友)자를 써서 “우 알베르토”라고 새긴 도장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좌 신부 시절 본당 한국인 주임신부님이 성모(거룩한 모범)로 이름을 지어 주어서 우성모 신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선교 실습 기간에 만난 한국 친구들에게서 한국말

외에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친구 야고보는 어학 수업 을 마치고 나온 저를 데리고 탁구를 자주 치러 갔습니다. 고맙게도 매번 친구가 돈을 내주었는데, 한참 지나서야 저도 번갈아 내기를 기대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 한국인 친구들은 저도 가끔 밥값을 내면 좋겠다고 말하기를 망설여 했지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친구들이 베푼 인심을 그저 받기만 했습니다. 신부가 되고 나서야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돈을 더 자주 내는 한국 풍속을 배웠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는 한국인들의 인심을 배우며 저

필자가 사목하는 성 마리아 본당 교우들과 함께 뒤쪽은 대형 철골 창고 성당이다. 해바라기와 교우들의 미소가 “누구나 환영합니다”라는 모토를 가진 본당 공동체의 따뜻한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골롬반선교」 청탁 원고

도 기쁜 마음으로 대접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 친구들과 밖에서 만나면 밥값을 제가 자주 내곤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아주 기쁩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 강렬했던 장면 하나가 떠오릅니다.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광주역에 도착했는데 사방이 군인들과 매캐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광주 항쟁 한복판에 발을 들이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최루탄 가스는 지독했고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죽거나 심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군인들이 철수하고 도시가 시민들 품으로 돌아오자 저는 자유롭게 걸어 다니면서 광주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위로하며 음식을 나누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경험은 제 선교 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중남미와 필리핀 출신 이민자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는 미국으로 오기 전에 고국에서 폭력과 내란을 경험한 후 나쁜 기억을 안고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들 고국에는 범죄 조직과 경찰이 국민에게 폭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민자들과 모종의 연대감을 느끼며, 이들의 생각과 느낌에 더 가까이 다가가 공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엘살바도르의 위대한 순교자 성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를 영웅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주임신부로 일하는 이곳 성 마리아 성당은 캘리포니아 폰타나에 있습니다. 신자들은 대부분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로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세대도 다양합니다. 제가 목포 대성동과 전남 영암 본당 신부로 있으면서 했던 경험은 지금 사목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본당에 있을 때 성전과 사제관을 새로 지어야 해서 저는 외국에서 후원금을 받고, 한국에서도 이곳 저곳을 다니며 호소하여 기금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본당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등록되어 있고, 신자는 이만 명이 넘는 아주 큰 성당입니다. 그러나 창문도 없고 교리실도 없는 오래된 철골 대형 창고 성당이라서 이곳 주교님과 신자들은 새로운 성전을 짓기를



목포 대성동성당 주임신부 시절 교리교사들과 함께 필자가 좋아했던 유달산이 보인다(1985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금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주말 축제를 개최해서 음식을 팔고 게임 등 이벤트를 열어 매년 1억 원 이상을 모았습니다. 1,200석 규모 성전을 짓기 위해 70억 원 가까운 돈이 필요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 덕분에 저는 두려움 없이 모금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판단과 도움을 신뢰하는 법을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본당에는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 주는 좋은 신자들이 많습니다.

산이 많은 펜실베이니아 출신이라 그런지 저는 숲에서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동료 선교사들과 서울 북한산을 즐겨 올랐습니다. 영암에서는 쉬는 날이면 혼자 월출산에 올랐습니다. 하루는 등산하다 말벌에 발등을 쏘였습니다. 발이 붓더니 숨쉬기도 어려워졌고, 걷지도 못해 드러누운 채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도 3,000m가 넘는 아름다운 산이 많아 쉬는 날이면 홀로 등산을 갑니다. 평일엔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산에는 큰뽕양, 사슴도 있고, 살쾡이, 퓨마, 방울뱀, 곰 등등 맹수도 사는데, 퓨마 말고는 다 한 번씩 마주쳐 봤으나 두려웠던 적은 없습니다. 두려운 게 있다면 발목이나 다리가 부러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한국에서 선교한 경험은 제게 많은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20여 년이 제게는 진정한 축복이며 은총이었기에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양창우 요셉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대구 출신으로 2000년에 사제품을 받았다.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선교했고,
한국지부에서 성소국장과 신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후원회를 담당하고 있다.



후원회 월레미사 생방송 제작 현장(유튜브 채널 '가톨릭스튜디오')

코로나19는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활동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제일 먼저, 전통적으로 이어 왔던 본당 방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유행 초기에는 곧 끝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서울, 인천 몇 개 본당을 연결하여 후원 홍보를 위한 방문을 준비 하였는데, 곧 모두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막막하고 염려되던 그때, 후원회 활동에 활기를 불어 넣은 것은 아주 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무엇인가 해야 하는 시대에 직면했다는

것을 감지한 동시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저는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은 데다가 인터넷상에서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았고 유튜브를 다룰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골롬반 본부 경당에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싶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튿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튜브 채널인 <가톨릭스튜디오>의 팀장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 형제는 저에게 유튜브 활동에 관심 있는지 물었고, 저는 이것이 전날 밤에 하느님께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 믿었습니다.

통화한 다음 날 바로 만난 우리는 우선 유튜브 기도를 만들기로 했고, 점차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월레미사를 생방송으로 봉헌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가톨릭스튜디오 측에서 기꺼이 환영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 선교 활동이 일 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영적인 삶에 활기를 주기 위한 찬양과 기도, 강론 그리고 후원회 미사를 통하여 많은 사람과 신앙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도구인 ‘줌(ZOOM)’을 활용한 ‘줌 영상 성령기도회’는 참여한 분들이 자신의 아픔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기도회는 성골롬반외방선교회를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새로운 후원회원들이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상황 전에는 서울후원회 월레미사에 20~50여 명, 연례피정과 야외미사 때는 80~100여 명 정도가 참여하셨는데, 유튜브 후원회 미사에는 최소 400명에서 700여 명이 함께하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온라인 비대면 미사뿐만 아니라, 대면으로 후원회 월레미사를 봉헌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코로나가 본격화되면서 골롬반 선교센터를 개방하지 못하여 장소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으로 옮겨 월레미사를 지속해서 봉헌하였습니다. 그곳에서도 새로운 후원회원들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골롬반회의 선교를 체험하고 우리 선교회를 널리 알게 해드리면서 이를 통해 새

로운 후원회원들과 봉사자들을 만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특히 새로운 봉사자들이 생겨나 활기를 더해 주셨습니다.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인데도, 후원회장님을 비롯하여 봉사자들, 후원회 사무실 직원들이 기꺼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며 축복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어떻게 후원회 활동을 해야 할지 아직 깊은 성찰과 기도가 필요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현재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후원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본당 방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후원회 활동이 더욱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깊은 곳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고 필요로 하는 그 깊은 곳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과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다양각색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절실한 때이고, 이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이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는 후원회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기도만큼 가장 영향력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골롬반회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회원 한분 한분이 저희에게 보좌입니다. 저희도 후원회원 여러분 가정마다 하느님 축복이 풍성하시길 그리고 성모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늘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튜브 검색창에 **가톨릭스튜디오** 또는 **골롬반TV** 를 입력하시면
후원회 월레미사와 양창우 신부의 강의, 기도회 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미사 봉헌

후원회 월례미사

	9월	10월	11월	12월	장 소	문 의
서울	3일	1일	5일	3일	명동 가톨릭회관	02-929-2977
인천	14일	12일	9일	14일	부평2동 성당	032-529-9621
원주	8일	13일	10일	8일	원동성당 만남의 방	033-765-3350
안산	10일	8일	12일	10일	원곡동 성당	031-491-2064
하안	24일	22일	26일	24일	하안 성당	02-899-7328
목포	28일	26일	23일	-	대성동 성당	061-276-9218
순천	29일	27일	24일	-	저전동 성당	061-741-8285
전주	30일	28일	25일	-	덕진 성당	063-272-5302
광주	24일	29일	26일	-	광주 골롬반 선교회관	062-371-5823
부산	9일	-	-	9일	용호동 성당	051-625-3382
제주	29일	20일	17일	15일	제주 골롬반 사제관	064-711-2471
	28일	-	16일	-	서귀 북자 성당	064-733-5523
	-	19일	-	21일	서귀포 성당	064-762-3444

- **제주** 9월 미사는 추석 연휴로 마지막 주로 변경합니다.
- **광주** 추석 연휴로 9월 목포, 순천, 전주 미사는 마지막 주로 변경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피정은 미사로 대신합니다.
12월 미사는 없습니다.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및 CMS 출금이체 동의서

후원 계좌

NH농협	179300-51-002198	우체국	014001-01-001544	KB국민	016737-04-001752
광주	200-107-332094	KEB하나	287-910011-22005	부산	070-01-022777-8
신한	140-007-742530	우리	1006-501-265347	IBK기업	012-056490-01-019
SC제일	225-20-397949	대구	004-10-004189	예금주:	천주교 성골로반외방선교회

미사 봉헌

미사 봉헌을 원하시는 회원은 **서울 후원회**(02-929-2977)로 연락해 주세요.

골롬반회와 JPIC 활동 * (Justice, Peace, Integrity of Creation 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

전 세계 골롬반회는 공동의 집인 지구 환경을 지키고, 하느님의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협력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각 선교지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처한 상황을 많은 이와 공유하고, 지구촌의 공동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실천을 세계인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부 또한 한반도 평화, 소외와 온갖 폭력에 신음하는 이들,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피조물을 위해 일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국지부 JPIC 코디네이터 함 패트릭 신부



2021년 해외선교사 귀국 프로그램

해외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선교사를 위한 <해외선교사 귀국 프로그램>이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선교를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고국에서 적응하기 또한 힘든 과정이기에 해외선교사교육협의회와 골롬반회(담당 오기백 신부)는 이들이 한국 사회와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을 매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케냐, 에콰도르, 포르투갈 등에서 선교한 사제, 수도자 여덟 명이 참여하여 제주의 자연과 더불어 선교 생활을 정리하며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미술사목하는 안재선 신부의 첫 번째 전시회

안재선 제이스 신부가 6월(1일~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산 다미아노에서 <아담 시리즈-인체탐험>이라는 제목으로 개인 초대전을 열었습니다. 하느님의 아담 창조 이야기를 누드 미술과 연결 지어 성경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해석한 인체 드로잉을 선보여 교회 안 밖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안재선 신부는 인체를 그리는 작업을 통해 하느님 창조의 힘을 느끼며,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신학원 소식

신학원 부원장으로 신학생 양성을 맡았던 주다두 신부가 1학기 종강과 함께 7년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주다두 신부는 6월, 정든 신학원 가족들과 감사미사를 드리며 “은총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후원회원, 양성자, 실무자, 신학생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영인 그레고리오 신부가 뒤이어 부원장 임기를 시작했고, 여름방학을 보내고 복귀한 신학생들은 피정으로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신학원 가족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이시돌 목장의 테시폰,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문화재청은 7월 1일 제주 성 이시돌 목장 테시폰식 주택을 국가등록문화재 제812호로 등록 고시했습니다. 테시폰은 골롬반회 임피제 맥글린치 신부(2018년 선종)가 아일랜드에서 배워온 공법으로 건축한 아치 구조물로서 목장 개척 과정에서 숙소, 창고, 축사 등으로 쓰였으며 당시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단 기간, 적은 재료, 간단한 기술로 지을 수 있어 전국에 보급되었습니다. 이는 제주 지역 목장 개척사, 생활사, 주택사의 흔적을 보여주는 건축 유산으로 가치가 높다고 문화재청은 밝혔습니다.



골롬반회 설립 본당의 희년을 축하드립니다

골롬반회가 설립하고 활동했던 광주대교구 강진(故 방다위 신부 설립)·서교동(천노엘 신부 설립)·소록도(故 권야교보 주교 설립) 본당이 60주년을 맞았습니다. 또한, 목포 대성동, 나주 남평, 서울대교구 마천동·사당동·신수동 본당도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중에 예전처럼 축하 자리를 가질 수 없지만, 기도 안에서 본당 역사를 돌아보며 골롬반 선교사들의 발자취도 함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설립 기념해를 맞은 모든 본당에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목포 대성동성당



선종한 골롬반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진 제랄드 신부
Gerald Peter Wilmsen

4월 6일 미국에서 선종. 1934년 9월 17일 미국 출생. 1959년 사제서품. 춘천교구 묵호 남호학교 교장, 구인란 주교 비서를 지냈으며, 죽림동주교좌·서석, 제주교구 중앙주교좌·서귀복자, 부산교구 아미동·만덕동, 서울대교구 신정동(설립)에서 본당사목을 하였습니다. 대학에서 광대학을 공부한 후 “제리”라는 광대로 변신하여 병원 환자를 위로하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미국 브리스톨 성 마리아 묘원 안장



기 바오로 신부
Paul Kenny

6월 29일 선종. 1930년 6월 29일 아일랜드 출생. 1954년 사제서품. 춘천교구 홍천·양덕원·죽림동주교좌·주문진, 서울대교구 왕십리·공덕동·도봉동, 수원교구 상대원, 광주대교구 두암동에서 본당사목을 했습니다. 또한, 춘천 성심여자대학교 교수 및 교목, 교황대사 대리, 가톨릭대학교 교수 등을 지냈습니다. 아일랜드 달간파크 성 골롬반 묘원 안장
☞ 관련 글: 22~23쪽



로 베드로 신부
Peter Cronin

7월 10일 미국에서 선종. 1954년 사제서품. 춘천교구 홍천과 철원(설립)에서 본당사목을 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강원도에 가서 본당을 세우고, 구호활동 등을 펼치며 신자뿐 아니라 지역 사람들과 어려운 시간을 함께 살았던 선교사였습니다. 한국 선교를 마친 후 미국에서 활동하며 골롬반회 미국지부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뉴욕 실버 크릭 거룩한 십자가 묘원 안장



마가렛 수녀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Margaret Moran

7월 11일 선종. 1945년 5월 20일 아일랜드 출생. 1967년 첫 서원, 1973년 종신서원 후 이듬해 한국 도착. 목포 성골롬반종합병원과 춘천 성골롬반의원에서 일했고, 이주민들을 동반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마태 6,33)를 실천하며, 한평생 아프고 가난한 이들 곁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머문 참 선교사였습니다. 춘천교구 부활성당 안장



갈 방지거 신부
Francis Daniel Carr

7월 28일 아일랜드에서 선종. 1935년 4월 30일 아일랜드 출생. 1959년 사제서품. 광주대교구 진도·해남·흑산도·목포 연동(설립)·광주 광천동·임동, 수원교구 하남 신장에서 본당사목을 하였습니다. 이후 아일랜드로 가서 본당사목과 골롬반회 행정 등을 맡았습니다. 특유의 환한 미소와 한결같이 사람들을 환대하는 모습이 그를 만난 이들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일랜드 달간파크 성 골롬반 묘원 안장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9월 28일
온라인 개강

ENTS English New Testament Sharing
on ZOOM

강의 안인성 패트릭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영어성경 강의

강의는 영어로만 진행합니다.

주제 “이 여자를 보아라.”(루카 7,44)
복음서 속 여성들과의 만남
Some Women in the Gospels

일시 9.28~11.30(매주 화) 19:00-20:30

일정	Week	Focus
	1주	Introduction : Mary
	2주	The Woman at the Well
	3주	The Syro-Phoenician Woman
	4주	The Woman to be Stomed
	5주	The Woman in the House of Simon the Pharisee
	6주	The Parable of the Widow and the Judge
	7주	The Wise and Foolish Women
	8주	The Woman with a Hemorrhage
	9주	Mary Magdalene meets the Risen Jesus
	10주	The Lord's Prayer

문의·접수 02-953-0613
www.ents.or.kr

수강료 3만원 (SC제일은행 225-20-397604 천주교성골롬반외방선교회)

골롬반 선교

2021년 여름가을호 vol.119



표지
그룹홈에 사는 엠마우스 가족과 천노엘 신부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아파트에 있는 이 그룹홈은 장애인들이 지역 주민과 이웃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보금자리다.

편집실 Tel. 02-927-2705
kormagazine@columban.or.kr

후원회 Tel. 02-929-2977
Fax. 02-929-1366
korseoulfund@columban.or.kr

한국지부 Tel. 02-926-1217
Fax. 02-926-0551
columban@columban.or.kr
www.columban.or.kr
www.facebook.com/columbankorea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발행일 2021년 9월 1일
발행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발행인 임영준(에이몬) 신부
편집장 안인성(패트릭) 신부
편집위원 노혜인(안나) 선교사
취재편집 김소영(세실리아)
번역 배영재(요세피나)
디자인 아이디퍼런스
인쇄 동진인쇄

2021년 봄호(제118호) 25쪽 사진에서 두봉 주교와 고 미카엘 신부 사이에 선 자매는 당시 영주본당에서 근무했던 마르가리타 자매입니다. 오랫동안 골롬반 선교사들과 함께 일한 분이어서 많은 분이 사진을 보고 반가워하셨습니다. 소개가 누락된 점 사과드립니다.



올해 주님 수난 성금요일,
골롬반회 후원회원, 신학생, 평신도선교사, 사제가 함께 “가톨릭기후행동”이 주최한 〈기후와 생애 십자가의 길〉에 참여했다.
서울 광화문에서 출발해 청계천을 거쳐 명동에서 마무리하는 이 여정을 걸으며
주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고통에 신음하는 지구를 위해 기도하였다.

사제 성소 모임

때 매월 첫째 일요일 9:30~14: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
(서울 동소문동)
문의 구화 루까노 신부
010-8686-1918
korvocation@columban.or.kr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때 매월 둘째 일요일 14:00~17:00
곳 골롬반평신도선교사 센터
(서울 동선동)
문의 노혜인 안나 선교사
010-3817-0567
clmkorea@gmail.com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때 매월 셋째 일요일 14:00~17:00
곳 성골롬반외방선교수녀회
서울 돈암동 수녀원
문의 성소 담당 수녀
010-5033-9302
columbankor@hanmail.net

지원사제 문의 남승원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010-9937-0901 korassocodi@columban.or.kr



성골롬반외방선교회
Missionary Society of Saint Columban

02830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93-14 | 전화 02-926-1217 | 팩스 02-926-0551
www.columban.or.kr